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61 호 현대불교
2009년 12월 9일(음 10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모든 것을 자기 내공에다 하나로 몰아서 되버리세요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에서 맏딸인데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시니 제가 가정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처럼 자유롭지도 못하고 심적 부담감으로 동생들에게 짜증을 부리게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상황도 안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독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정말 마음으로나마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만날 낯설리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나가는 행편을 가만히 보세요. 공부를 덜한 사람은 공부를 덜한 대로 직업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직업을 갖게 되고, 총명한 사람은 총명한 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이 있는 대로, 기술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차원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도 차원대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으면 이 세상을 다 안고도 남음이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우리가 이렇게 구르고 돌아가면서 차츰차츰 차츰차츰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면서 전자가 몰라서 하던 그 마음들이 나프탈렌 녹아 가듯 녹아 없어지면서 자꾸자꾸 그 차원이 높아지죠. 작년에 하던 일 다 자꾸 없어지고, 어저께 었저께 한 일 다 자꾸 녹아져 없어지고, 자꾸자꾸 새로 이렇게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바로 연방 연방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흐르고 있으니까 자꾸자꾸 차원이 높아져서 정말 지금 시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삼차원에서 사차원으로, 사차원에서 오차원으로, 오차원에서 육차원으로, 칠차원으로 팔차원으로 이렇게 자꾸자꾸 차원이 올라감으로써, 자기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묘용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대인이 되고 참 자유인이 된다 이 소리죠.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전자의 선지식들이 가진 그 길을 밟고 좇아가게 되고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둥을 세우게 되고, 발판을 매고 또 집을 짓게 되고 이러한 거죠. 마음의 주춧돌이 튼튼치 못하다면 그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을 세울 때 발판을 매지 않는다면 그



집을 완전히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면, 중심이 튼튼하지 않다면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죠. 진구령에 기둥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래밭에 기둥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돌아가고 하는 것을 참구해서 '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고.' 하고 심곳이 웃고 자기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다시 되새겨서 '누가 말했단고.' 하고 그 말하기 이전을 다시 한 번 참구해 본다면 아주 세밀하게 '참자기'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주인공에 맡겨 놓고 믿을

을 맡겨서 지고 자기 주인공 근본 자체만을 믿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참 전부적인 자유인이 돼서 각을 이루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놔라. 놔라. 맡겨 놓고 살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견해로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지, 그전 자기 마음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정되지 관념을 갖고 고정하지 마세요. 고정하면 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을 하면서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남을 원망하는 것보다 그저 남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기를 밑으로 내려 세우는 것이, 마음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외려 겸손하고 착실하고 진실된 인간의 자

유인을 만드는 과정이죠. 아시겠어요?

정해진 운명도 피해 갈 수 있는지요?

문 사는 게 뭘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점을 본 적이 있는데 크게 아플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무시하려고 하지만 늘 마음 한 편이 썩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걸 공부 재료로 삼으라 하시는데 이처럼 내게 정해진 운명도 피해 갈 수 있는지요?

답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던 것이 다 입력이 돼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쁜 일도 안 하고 그랬는데 왜 내 팔자가 이렇게냐고 하죠. 내 운명이 왜 이렇게냐고 말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입력된 거

는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팔자운명이 불을 지라도 없고 병고도 불을 지리 않고 모든 게 그냥 공해버려서 아무것도 불을 지리 않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나오는 자리에 다 되놓는다면 그 입력이 됐던 것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니까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비행기 그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건데, 진리가 그런 건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죄 불을 지리하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대로 놓는다면 병 불을 지리하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분이 아프다고 날 찾아왔기에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 병을 내와 보라 그랬습니다. 고쳐줄 테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풍하니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게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 끌고 다니는 지배인이거든요. 그 마음. 그림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도 그 의식이 다 그 지배인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인으로 인해서 현재로 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이 구조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몸의 상태의 모든 것을, 체질을 바꿀 수도 있고 기를 넣을 수도 있고 기를 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요. 지금이 오장육부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그 사장이나 회장의 말 한마디면 공장장은 다 들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마음내기 이전은 힘이에요. 마음을 내는 거는 법이고 움직여지는 것은 바로 우리 생활입니다. 모두가 이 행이죠.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일체가 돌아가죠.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도리를 알면 그저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삽니다. 강당에 들어가야만 하냐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또 법당에 들어가야만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체첸하고 싶습니다

문 현대불교 신문에서 스님 법문을 보고 이 마음공부에 심취하게 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나름대

26면으로 계속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종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해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해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계종통합(諸宗通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화하증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 본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경합판 사진 4장
-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대한불교조계종 청강사 해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0-9506-5706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배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배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법왕정사 서울법당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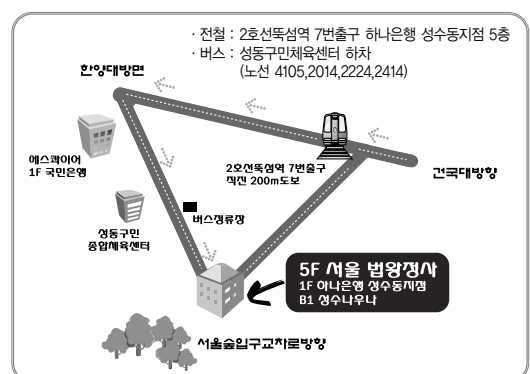
알아차림과 호흡에 맞춰 절하는 3000배 용맹정진으로 21세기 불교수행문화를 선도하는 법왕정사 서울법당이 업장은 저절로 뚝뚝 떨어지고 소원성취는 즉각 성취되는 폭도(폭심)의 서울숲으로 이전합니다.

법당전체가 난방이 되는 100평 규모의 널찍한 도심 속 최고의 수행도량으로 거듭납니다.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에서는 청견스님의 특별 수행노하우인 와선비법이 공개됩니다.

◆새해맞이 3000배 용맹정진: 12월 31일 목요일 저녁9시 (새해아침 청견스님의 와선비법으로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볍게)

서울 법왕정사역도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